

# 농촌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이들의 의견

[조선농민] (총3호 1926년 2월 12일)

## 1. 농촌청년에게 간절히 기대하고 싶은 일.

농촌청년에게 기대하고 싶은 일은 옛날과 같이 임군에게 충성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하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니고 종래에 우리가 알아오던 것과는 도리어 반대 되는 관념을 가져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는 과거에 일을 아니하고 놀고 먹는 사람을 양반이라, 잘난 사람이라 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안될 일이외다.

우리가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절도나 강도와 같은 일이외다. 이제부터는 노동신성이라는 관념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제일 못난 사람이니까 농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함은 아주 못생긴 생각입니다. 일하는 사람이래야 귀한 사람이요, 일 안하고 먹는 사람은 도적 사람이라고 생각하여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노동을 신성하게 알고 놀고 먹는 사람을 도적과 같이 사갈시하게 되는 날 이 세상은 고쳐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농촌 청년으로 하여금 노동하는 것을 최고도덕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 2. 농촌청년을 위하여 실행하고 싶은 일.

농촌청년을 위하여 하고 싶은 일은 그네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사상을 고취하여 갑자기 고상한 운동자가 되도록 하는 것보다 대체로 그네는 무지하여 전후 분별이 선명하지 못한 터인즉 우선 간이한 국문을 가르치며 쉬운 숫자부터 알게 하여 농촌청년은 물론 농민 전부에게 다소라도 스스로 무엇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비판을 가지도록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3. 농촌청년의 현대적 수양상 권하고 싶은 도서 및 잡지.

내가 권하고 싶은 책은 유감이지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잡지는 더욱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태여 권한다면 경제독본(일문), 자조론(육당 저)을 보라고 권할까요.